

풍요와 빈곤에서 만난 고사리*

— 송대 음식 시가를 통해서 본 고사리의 문학적 재현과 상징

김원희**

목 차

1. 서론
2. 풍요 속 고사리
 - 1) 小兒拳
 - 2) 春, 饌
 - 3) 采蕨
3. 빈곤 속 고사리
 - 1) 饑饉
 - 2) 救荒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송대 음식 시가에 나타난 고사리의 이미지 재현 양상과 그 문학적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고사리는 봄을 대표하는 산나물로서 계절의 순환과 생명의 약동을 집약적으로 표상하며, 문인들에게 자연의 변화와 시간을 체감하게 하는 감각적 매개로 기능하였다. 이는 시적 감흥이 거시적 풍광보다 제철 식탁이라는 일상적·미각적 경험에서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제철 고사리의 채취와 향유는 자연 공간에서의 직접적 접촉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체험의 과정으로, 시가 속에서 중요한 형상화의 계기를 이룬다.

한편, 봄날 생명력이 넘치는 山川에서 채집하고 향유하는 고사리는 역설적이게도 풍요의 반대인 빈곤을 내포한다. 고사리는 기근 상황에서 생존을 지탱하는 구황식이

* 이 연구는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51598).

** 제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학술연구교수

자 곡물을 대체하는 식자재로서, 가난한 백성과 문인의 밥상을 함께 책임지는 상징으로 제시된다.

키워드: 宋詩, 고사리 蕨, 봄 밥상, 小兒拳, 文人, 饑饉, 救荒食

1. 서론

唐詩가 예술사적 정점에 이른 이후, 宋詩는 그 성취를 계승하면서도 형식과 내용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적 경지를 개척하였다. 宋代는 일상 사물과 경험에 대한 심미적 시선을 확장하여 평범하고 사소한 생활 세계를 시적 경지로 승화시켰다.¹⁾

송대 시인들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사물이 시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평범한 생활 경험을 통해 인간 내면의 깊이와 삶의 참된 의미를 탐구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 詩史에서 일상성의 미학을 확립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음식은 일상생활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 예외의 대상이 아니었다.

본 논문은 시가 문학에서 식재료로 소비된 ‘고사리’의 의미와 표현 양상을 고찰하고, 송대 음식 시가²⁾에 나타난 고사리의 시적 형상을 분석함으로써 문학과 음식 문화의 교차 지점에서 시가 속 음식의 문화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1) 莫礪鋒, 『唐宋詩論稿』, 遼海出版社, 2001, 525-541쪽 참조.

2) 孔祥賢은 『陸游飲食詩選注』(中國商業出版社, 1989)의 책 소개에서 飲食詩의 기준을 ‘음식 사료적 가치가 있는 시’라고 보았고, 劉麗의 『宋代飲食詩研究』(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8-9쪽)에서는 飲食詩를 ‘음식과 조리를 직접적인 심미 대상으로 삼는’ 시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음식 주제는 창작 내용이 음식 자체를 중심으로 명확히 전개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식자재, 음식, 식사, 풍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음식이 시의 주요 이미지이자 직접적인 심미 대상으로 기능하여, 시의 주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더 나아가 음식과 관련된 행위가 핵심적인 묘사 대상으로 부각되는 경우까지 포괄될 수 있다.

한다.

학계에서 송대 문인의 음식 시가 연구는 크게 세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송대 음식 문화를 총체적으로 고찰한 연구, 둘째, 개별 문인의 시문을 중심으로 음식 문화를 분석한 연구, 셋째, 특정 식자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것이다.

총론 연구는 陳素珍의 「北宋文人的飲食書寫」(東海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施靜宜의 「南宋文人飲食文化之研究」(中國文化大學博士學位論文, 2013) 등이 있다. 개별 문인을 대상으로는 梅堯臣, 蘇軾, 黃庭堅, 陸游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³⁾ 식자재 연구는 侯欣媛의 「南宋時期荔枝的流通-以臨安爲核心」(東吳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등이 있다.

이처럼, 음식 문화 연구는 주로 역사학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반면, 문학 방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성과가 제한적이었다. 다만 최근 들어 張冉冉의 「中唐至北宋詩歌中的食物書寫」(浙江工業大學碩士學位論文, 2014), 劉麗의 「宋代飲食詩研究」(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張雪菲의 「陸游飲食詩‘以俗爲雅’的審美趣味研究」(長安大學碩士學位論文, 2019), 徐亞寧의 「楊萬里飲食詩研究」(政治大學碩士學位論文, 2022) 등을 중심으로 시가 문학에서 음식 관련 연구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별 식자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여전히 그 성과가 미미한 편이다. 특히 고사리를 소재로 한 시가 작품의 수를 감안할 때, 이를 식문화적 관점에서 고찰한 문학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다.

고사리는 시간상으로는 봄을, 공간상으로는 자연을 재현하며, 여기에 산림에서의 채집 행위가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미각을 넘어서 복합적인 ‘맛’을 형

3) 周亞青의 「蘇軾飲食書寫研究」(高雄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10), 汪育正的 「從劍南詩稿論陸游的飲食生活」(東吳大學碩士學位論文, 2011), 何欣隆의 「北宋文人飲食文化—以梅堯臣詩文爲例」(東吳大學碩士學位論文, 2013), 王博弘의 「蘇軾貶謫時期飲食生活書寫」(玄奘大學博士學位論文, 2016), 吳昭峰的 「蘇軾飲食書寫之研究」(臺北市立大學碩士學位論文, 2017), 林執中的 「黃庭堅的飲食生活」(東吳大學碩士學位論文, 2016) 등이 대표적이다.

성하는 독특한 식자재이다.

송시에서 고사리는 음식으로 향유되면서, 문인의 식탁에서 단순한 미각의 쾌락에만 그치지 않고, 자연환경의 공간적 조건과 인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인문적 경험이 결합해 더욱 복합적인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시가 작품을 통해 고사리의 식용 양상을 분석하는 일은 결코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 『詩經·召南·草蟲』篇에서 ‘저 남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노라(陟彼南山, 言采其蕨)’라고 하여 고사리가 봄철 대표적인 채집 나물로 언급된 이래, 『書經』, 『論語』, 『史記』 등 先秦 문헌에 수록된 백이·숙제 고사를 통해 고사리는 절개와 은거를 상징하는 표상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충절의 상징성은 후대 문학 전통 속에서 꾸준히 계승되었으며, 노신의 『故事新編』 「采薇」(1935)에 이르기까지 고사리는 단순한 식자재를 넘어 문화적·윤리적 의미를 지닌 존재로 확장되었다. 송대에 들어서면서 고사리의 이미지는 더욱 풍부한 의미를 획득하였고, 정치적 좌절과 국가적 혼란 속에서 사대부들이 자신의 절개와 지향을 표명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⁴⁾

이같이 사대부의 가치관이 투영된 음식 典故가 가지는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송대 문인이 향유한 음식 문화와 음식을 대하는 문인의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全宋詩』(傅璿琮 主編, 北京大學出版社, 1998)에서 ‘고사리 꺾(蕨)자’⁵⁾를 시어로 사용한 작품 540여 수를 검토하여, 이 가운데 음식과 관련된 작품을 선별,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충절과 청렴의 상징, 즉 백이·숙제의 고사리 고사와 관련된 작품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지만, 음식 문화와도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는 경우에는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4) 김민호, 『충절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 성균관대출판사, 2000년, 97-128쪽 참조.

5) ‘고비’ 또는 ‘고사리’란 뜻을 가진 ‘薇’는 ‘蕨’과 달리 宋詩에서 ‘薔薇’로 쓰인 예가 많고, 또 ‘采薇’ 시어가 등장하는 시 200 여수는 모두 백이·숙제 고사와 관련된 작품이므로, ‘薇’는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2. 풍요 속 고사리

1) 小兒拳

3월 말, 봄비가 잦고 흐린 날씨가 연일 이어지는 시기를 한국의 대표적 고사리 생산지 제주도에서는 ‘고사리 장마’라고 부른다. 중국 남방 지역 또한 이 시기에 적절한 습기를 머금으며 계절의 변화에 호응하는데, 이는 고사리의 생장을 촉진하는 환경적 기반이 된다.

南宋 江西 출신 汪應辰은 바로 이러한 고사리의 역동적인 생장 과정을 포착하여 시 「蕨初生」⁶⁾에 형상화하였다.

一拳打破地皮穿, 한 주먹에 땅을 깨서 뚫고 나오더니,
拿住春風不放拳. 봄바람 붙잡고 주먹을 꼭 움켜쥐네.
直待子規啼夜月, 두견새 달밤에 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放開靑掌始朝天. 푸른 손바닥 펴고 하늘을 향하기 시작하네.

시는 어린 순이 두견새 우는 늦봄이 되면 아이의 팔뚝처럼 줄기가 쭉쭉 올라오고, 결국 햇빛이 강해져 잎이 손처럼 완전히 퍼지면 질겨져 식용하기 어렵게 되는 고사리의 성장 과정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작은 싹이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一拳打破’라고 하더니, 봄이 완연할 즈음 ‘拿住春風不放拳’이라고 한 起承 구절은 우리나라에서도 익숙한 ‘고사리’의 ‘주먹 쥔 손’ 이미지를 재현한 것이다.

우리말에서도 관용적으로 쓰이는 ‘고사리 같은 손’은 양치류의 어린잎이 생장 초기 단계에서 보이는 특유의 나선형 말림이라는 외형적 특징에 근거하여 형성된 형태학적 비유이다. 중국 고문헌에서는 이러한 외형적 특징에 근거하여, 고사리 ‘蕨’의 명명 유래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 汪應辰, 『文定集』卷24, 四庫全書本.

(陸機의) 『草木疏』에서 “周와 秦은 고사리를 ‘蕨’이라 불렀고, 齊와 魯는 ‘鰲’이라 불렀다. … 속설에 따르면, 고사리가 처음 나와서는 그 모양이 자라의 발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한다(『草木疏』云, 周秦曰蕨, 齊魯曰鰲. … 俗云其出生似鰲脚, 故名焉.)”라고 하였다.⁷⁾

이후, 북송 陸佃이 『詩經』 속 동식물을 연구하며 만든 사전 『埤雅』에서는 “고사리는 처음 날 때 잎이 없으며, 모양이 참새 발이 주먹 쥔 것 같고, 사람이 발을 구부린 것 같다. 이에 이름 지었다(蕨初生, 狀如雀足之拳, 又如人足之蹠, 故名焉.)”⁸⁾라고 하였으며, 남송 羅願의 『爾雅翼』에서는 “고사리가 처음 날 때의 모양은 마치 어린아이의 주먹 쥔 손 같다가, 자줏빛이 돌면서 굵어진다(蕨生如小兒拳, 紫色而肥)”⁹⁾라고 하였다.

시가에서 ‘주먹 쥔 손, 拳’의 이미지를 결부하여 시적 형상화한 것은 唐代 李白이 시 「憶秋浦桃花舊遊時竄夜郎」에서 ‘예전 오솔길 알 수 없구나, 주먹 쥔 듯 갓 돌아난 고사리 몇 줄기뿐(不知舊行徑, 初拳幾枝蕨)’¹⁰⁾이라고 한 데서 처음 보인다. 고사리와 ‘주먹 쥔 손, 拳’의 이미지를 최초로 결부하여 형상화한 것이다. 이후, 蘇軾이 시 「春菜」에서 ‘순무 묵은 뿌리엔 벌써 잎 틈우고, 부추 싹 흙을 떠밀고 자란 것이 주먹 쥔 고사리 같구나(蔓菁宿根已生葉, 韭芽戴土拳如蕨)’¹¹⁾라고 하며 이를 활용하였다.

전체 송시 가운데 총 51수에서 고사리와 ‘주먹 쥔 손, 拳’을 비유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이 중 음식과 관련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표1) 고사리를 주먹 쥔 손에 비유한 43수 가운데 음식과 관련된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	제목	작품	내용
1	黃庭堅	「觀化十五首」	竹筍初生黃犢角,	아이의 주먹처럼 자란 고사리순이

7) 『毛詩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71쪽.

8) 陸佃, 『埤雅』卷34, 光緒 益雅堂叢書本.

9) 羅願, 『爾雅翼』卷4, 乾隆御覽四庫全書薈要本.

10) (清)王琦 注, 『李太白全集』卷23, 中華書局, 1999, 1088쪽.

11) 『蘇軾詩集合注』, 上海古籍出版社, 2001, 759쪽.

		其十一」	蕨芽已作小兒拳.	들어간 강남의 제철 밥상
2	孫觀	「鼃畫溪行四首 其二」	蕨芽戴土小兒拳, 漁市人歸柳貫鮮.	흙을 떠밀고 솟아난 아이의 주먹 같은 고사리순과 생선 요리
3	朱松	「蔬飯」	蕨拳嬰兒手, 筍解籜龍蛻.	갓난아기의 손같은 고사리순이 올라온 나물 밥상
4	王十朋	「食筍蕨」	犢角兒拳共作羹, 大勝五鼎八珍烹.	송아지 뿔같은 죽순과 아이의 주먹 같은 고사리를 모두 넣어 국을 만들어 먹으니 팔진미보다 낫네.
5	王十朋	「和昌齡弟見寄」	左原風物亦不惡, 溪蓴抽絲蕨吐拳.	시냇가의 순채와 주먹처럼 솟아 온 고사리, 두 고향 음식에 대한 그리움
6	洪適	「雜詠下 蕨」	塊破拳拳出, 盤行轉眼空.	단단한 흙덩이 깨고 주먹 쥔 듯 솟아오르는 고사리는 대표적인 구황식
7	陸游	「戲詠鄉裏食物示 鄰曲」	湘湖蓴長涎正滑, 秦望蕨生拳未開.	부드럽고 매끄러운 순채와 주먹 쥔 고사리순, 두 고향의 식재료
8	楊萬里	「初食筍蕨」	稚子玉膚新脫錦, 小兒紫臂未開拳.	아직 주먹을 펴지 않아 소아의 붉은 팔뚝 같은 줄기를 요리한 고사리 나물 반찬
9	楊萬里	「宿南嶺驛二首 其一」	蕨手猶拳已箸長, 菊苗初甲可羹嘗.	영남 고사리 손은 주먹같지만 젓가락만큼 자라나 향기로운 들나물 반찬이 되네.
10	楊萬里	「船中蔬飯」	食蕨食臂莫食拳, 食筍食梢莫食根.	주먹처럼 생긴 고사리 머리는 떼어내고 팔뚝같은 줄기를 요리해 배불리 먹음
11	廖行之	「和食蕨三首 其二」	根菱蔓衍布山巔, 一夕春雷引怒拳.	사나운 봄 날씨 속 분노한 주먹마냥 땅속에서 올라온 고사리의 진미를 맛봄
12	劉過	「郭帥遺蕨羹」	金山乞取一片山, 要看濺濺兒拳短, 窮人便是知田漠.	국물 속 촉촉이 젖은 아이 주먹 같은 고사리
13	敖陶孫	「酬答李學長」	朝來食盤中, 稚蕨初數拳.	아침 밥상에 올라온 아이 주먹처럼 생긴 고사리순
14	方嶽	「春行」	西山雲臥蕨拳紫, 待約溪翁飽食新.	보랏빛 주먹 모양의 고사리로 요리해 배불리 먹으려 함
15	方嶽	「次韻十二神體 其二」	猴拳蕨嫩鮮可烹, 雞毛菜香醉言舞.	원숭이 주먹 같은 부드러운 고사리로 요리함
16	陳著	「留稼山」	山蕨如拳未有筋, 溪魚子腹不生鱗.	주먹 같은 산고사리와 생선으로 요리해 술 안주로 삼으려 함

시가에서 봄철 고사리의 연하고 부드러운 상태, 곧 식용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주먹 권 손, 拳’에 비유한 표현은 표1)에서 확인되듯, 황정건이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어린이의 주먹 권 손, 小兒拳’으로 구체화한 것도 역시 황정건이다.

육전과 동료였던 황정건은 시 「觀化十五首 其十一」에서 ‘막 돋은 죽순은 노란 송아지 뿔 같고, 고사리순은 이미 어린이의 주먹을 닮았네. 들나물 캐어와 향기 나는 밥 지어보니, 이것이야말로 강남의 이월이로구나(竹筍初生黃犢角, 蕨芽已作小兒拳. 試挑野菜炊香飯, 便是江南二月天.)’¹²⁾라고 하여, 갓 채취한 죽순과 아이 주먹 권 모양을 한 고사리로 만든 소박한 식사를 江南 지역 봄의 정취로 형상화하고 있다.

고사리는 이른 봄 땅을 뚫고 올라오면서 끝부분이 세 갈래로 갈라져 주먹 모양으로 둥글게 감겨 있는 어린순, 즉 ‘어린이의 주먹 권 손, 小兒拳’의 형태를 띠는 시기일 때 수확해야 가장 부드럽고 단맛이 난다. 황정건은 이러한 고사리의 형태적 특징에 근거한 비유를 활용함으로써, 고사리가 지닌 부드러운 식감과 섬세한 미각적 감흥을 한층 입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황정건 이후, 남송 시인 方嶽 역시 여러 시에서 고사리를 ‘주먹 권 손’의 형상으로 묘사하였다.¹³⁾ 시 「次韻十二神體 其二」에서는 ‘원숭이 주먹 권 손같은 고사리 부드럽고 신선해 요리해 먹을 만하네(猴拳蕨嫩鮮可烹)’라고 하였으며, 한나라 무제의 후궁인 趙婕妤, 즉 鉤弋夫人이 태어날 때부터 주먹을 권 채 출생하였다는 전고와 결부하여 시 「采蕨」¹⁴⁾도 남겼다.

野燒初肥紫玉圓, 들불 뒤 돌아난 자줏빛 영근 고사리,
枯松瀑布煮春煙. 마른 가지에 아지랑이 쏟아내며 삶아지네.
偃徐妙處元無骨, 부드러운 절묘한 자태는 원래 뼈가 없어서라네,

12) 황정건 지음, 박종훈 등 옮김, 『황정건시집주』14, 소명출판사, 2024, 82쪽 참조.

13) 方嶽은 시 「春行」에서 ‘西山雲臥蕨拳紫’, 「春晚 其二」에서 ‘紫蕨成拳著雨肥’, 「次韻采菌」에서 ‘蕨拳恨不同一時’, 「次韻十二神體 其二」에서 ‘猴拳蕨嫩鮮可烹’이라고 하며 고사리를 ‘주먹 권 손’으로 묘사하였다.

14) 方嶽, 『秋崖集』卷7, 四庫全書本.

鉤弋生來已作拳,¹⁵⁾ 구익부인처럼 날 때부터 이미 주먹을 쥐었지.
 蚤韭不甘同臭味, 봄 부추 맛은 비슷해도 달지 않고,
 秋蓴雖滑帶腥涎, 가을 순채 부드러지만 비리고 끈적하지.
 食經豈爲兒曹設,¹⁶⁾ 식경이 어찌 젊은이에게만 해당하겠는가,
 弱脚寒中愁未然, 다리 약해지고 찬 기운 들까 근심이 앞서네.

이 시는 봄 부추와 가을 순채와 차별화되는 삶은 고사리의 맛과 식감을 바탕으로, ‘뭍 없음’과 ‘주먹 쥔 모습’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고사리 줄기의 유연한 부드러움과 어린순의 아담한 자태를 시각적·촉각적으로 정교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물의 감각 묘사를 넘어, 미각적 경험과 그 감흥이 긴밀히 맞물리는 지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2) 春, 饌

‘봄이 되면 명산에서 죽순과 고사리가 살찐다(春入名山笋蕨肥)’¹⁷⁾라는 시구처럼, 송대 문인들은 산천초목의 생육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연의 산물을 식자재로 전환하여 누림으로써, 의식주 전반에서 시절의 변화에 조응하는 생활 양식을 영위하였다.

고향 紹興에 내려와 만년을 보내던 남송 시인 陸游 역시 고사리 살찌는 자연의 리듬에 동화되어 「晚春感事四首 其一」을 남겼다.

15) 漢 昭帝의 어머니 趙婕妤의 별칭으로 『漢書』에서 “여인은 주먹 쥔 상태였는데, 무제께서 직접 펼치자, 주먹이 즉시 펴졌다. 이로써 총애를 얻으니, 拳夫人이라고 하였다(女兩手皆拳, 上自披之, 手卽時伸. 由是得幸, 號曰拳夫人.)”라고 하였다.

16) 唐 孟詵의 『食療本草』卷下 ‘蕨’에서 “令人脚弱不能行, 消陽事, 縮玉莖. 多食令人發落, 鼻塞, 目暗. 小兒不可食之, 立行不得也.”라고 하였다. 이처럼 의학서에서는 고사리의 성질이 차가워, 젊은이들이 많이 먹을 경우 양기를 해쳐, 하체 부실을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시인은 이러한 의학서의 주장을 언급하며, 제철 고사리를 너무 좋아해도 몸을 해칠 정도로 먹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17) 趙公頤, 「宰余杭遊洞霄」, 『洞霄詩集』, 知不足齋叢書本上.

風惡房櫳燕子歸, 거센 바람 피해 처마 밑으로 제비 돌아오고,
雨多山路蕨芽肥. 억수 같은 비에 산길마다 고사리 싹하게 자라네.
青糝旋搗作寒食, 푸른 떡 찌어 한식을 준비하고,
白葛預裁充暑衣. 흰 칩베를 만들어 여름옷을 마련하네.

시는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생활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시인은 봄바람과 비, 그리고 그 속에서 풍성하게 자라나는 고사리와 같은 자연의 순환에 맞춰, 寒食에 먹을 푸른 떡을 빚고, 다가올 여름을 대비해 시원한 옷을 지으며 일상적인 삶을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시인들은 화려한 자연경관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포착하고, 그 안에 축적된 시간의 흐름을 시어로 드러내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과는 달리, 시적 감흥이 반드시 장대한 자연의 장관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적 경험의 차원에서 더 직접적이고 생생한 감흥이 유발되기도 한다.

韓泂, 「蕨菜」¹⁸⁾

春華滿眼倦尋詩, 봄꽃 화려하게 눈을 가득 채우지만, 굳이 시를 짓지 않았건만,

蕨菜才來又賦之. 고사리 피어나니 다시금 시 한 수를 읊조리게 되네.

雷雨動山應偏塞, 뇌우신이 산을 진동하여 빼곡히 가득 채우고,

風雲垂地正奔馳. 풍운신이 땅에 드리우니 바로 광활히 퍼져가네.

僧盤何苦分葷素, 절간 밥상에 굳이 고기와 채소를 나눌 필요 있나,

鼎食那能問瘠肥. 부자의 밥상에 뭇 하러 척육인지 비육인지 물어보라.

珍重方齋家¹⁹⁾送似, 운씨 집안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고사리 선물,

爲加餐飯亦何其. 어쩌나 내 건강한 밥상을 챙겨주시는지 감사할 따름이네.

산과 들에 스스로 뿌리 내리고 자라는 나물은 단순한 식자재가 아니라, 강

18) 韓泂, 『潤泉集』卷14, 四庫全書本.

19) 韓泂(1159-1224)는 부친 韓元吉과 교유하였던 尹穡(字少稷, 山東 兗州人, 저서로 『方齋集』) 가문과 대대로 교류 관계를 이어왔다. 이 시는 윤색의 가문에서 보내온 고사리 선물에 대한 답가로 지어진 것이다.

인한 생명력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존재이자 우리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자원이다. 이러한 나물이 땅에서 힘차게 돋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직접 채취하여 음식으로 만들어 맛보는 일련의 과정은 자연과 깊은 교감을 가능하게 한다.

陸游가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지은 「飯罷戲示鄰曲」에서 ‘고사리순의 싱그럽고 부드러운 맛이 봄나물을 압도한다(蕨芽珍嫩壓春蔬)’라고 한 것처럼 자연의 생장과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이를 음식이라는 일상의 차원에서 누리는 경험은 시적 감흥을 촉발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王庭圭의 시 「次韻劉英臣早春見過二絕句 其二」²⁰⁾를 살펴보자.

春至盤蔬有蕨芽, 봄이 되니 나물 반찬에 고사리 올라오고,
紙窗竹屋自成家. 종이 바른 창이 있는 대나무 집에 나의 안식처.
客來清坐不飲酒, 손님이 오면 앉아서 술은 마시지 않고,
旋破龍團潑乳花. 용단차를 부수어 찻잔에 하얀 거품을 피우네.

죽순과 고사리의 생장, 자연과의 교감은 단순한 식생활의 차원을 넘어선다. 봄철 밥상에 오르는 고사리는 인간과 자연 간의 정서적 유대를 맺는 매개체로 작용하며, 계절의 흐름과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표상하는 주요한 시적 소재로 승화된다.

산천에 자생하는 고사리가 시인의 일상적 식자재로 수용되면서, 그 체험이 시적 형상화 과정을 거쳐 작품 속에 지속해서 재현된 모습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표2) 봄, 문인 식탁에 오른 고사리를 노래한 작품

	작가	제목	작품	내용
1	吳淑	「送僧歸天寧萬年禪院」	樓中夕照山川秀, 盤裏春蔬筍蕨肥.	소반에 담긴 봄나물 죽순과 고사리 살찌네.
2	王禹偁	「送趙令公西京留守」	春饌思山蕨,	봄 반찬으로 산고사리 생각나네.

20) 王庭圭, 『盧溪文集』卷21, 四庫全書本.

			秋屏畫水紅.	
3	梅堯臣	「與正仲屯田遊廣教寺」	酒杯參茗具, 山蕨間盤蔬.	소반 위 나물 사이로 산고사리 올라오고.
4	司馬光	「三月十五日宿魏雲夫山莊」	飯炊松粒細, 盤采蕨芽新.	막 올라온 고사리 캐어 반찬으로 삼고.
5	黃庭堅	「到官歸志浩然二絕句 其二」	鳥鳴未覺常先曉, 筍蕨登盤始見春.	반찬으로 올라온 죽순과 고사리로 비로소 봄이 보이네.
6	唐庚	「雜詩二十首 其十六」	筍蕨春生箸, 魚蝦海入盤.	죽순과 고사리로 젓가락 사이 봄이 깃드네.
7	王庭圭	「次韻劉英臣早春見過二絕句 其二」	春至盤蔬有蕨芽, 紙窗竹屋自成家.	봄이 오니 소반 위 나물에 고사리가 올라오네.
8	曹勳	「山居雜詩九十首 其三十五」	草茅晦小隱, 筍蕨供大嚼.	죽순과 고사리가 고기처럼 입맛을 다시게 하네.
9	王十朋	「毛處卿見過」	盤實釘梅豆, 蔬餐薦薇蕨.	나물 식사에 고비와 고사리 올려지네.
10	李流謙	「錢氏隱居三首 其一」	晚杯魚蟹富, 春箸蕨薇香.	봄 식사에 고사리 고비 맛나네.
11	吳儆	「拾梧子」	春盤厭筍蕨, 秋子積梧桐.	봄 소반에 죽순과 고사리 질리도록 먹고.
12	陸游	「蔬食」	牆陰春薺老, 筍蕨正登盤.	죽순과 고사리 마침 소반에 올라 올 때.
13	陸游	「自九里平水至雲門… 其六」	還家莫道虛懷袖, 筍蕨隨宜亦滿槃.	죽순과 고사리 때맞춰 소반 가득 쌓이네.
14	楊萬里	「乙酉社日偶題」	綠暗紅明非我事, 且尋野蕨作蔬盤.	들고사리 따서 나물 반찬으로 삼으리.
15	楊萬里	「初食筍蕨」	只逢筍蕨杯盤日, 便是山林富貴天.	죽순과 고사리철을 맞아 밥상에 올라오고.
16	廖行之	「和食蕨三首 其一」	放箸朝來頗不貧, 野盤春蕨正宜人.	들나물 반찬 중에 봄 고사리가 제격이네.
17	趙蕃	「季春十有三日作」	故山政好不歸去, 筍蕨登盤僧饋茶.	죽순과 고사리가 소반에 올려지고 스님은 차를 대접하네.
18	敖陶孫	「酬答李學長」	朝來食盤中, 稚蕨初數拳.	아침에 오른 밥상에는 어린 고사리순들
19	汪莘	「訪曾侍郎」	若教買得青山住, 飽食筍蕨歌春暉.	죽순과 고사리 배불리 먹고 봄별 노래하네.
20	吳泳	「用韻謝帥機惠春盤」	癭藤樽內抄松子, 行玉槃中揀蕨芽.	옥쟁반 속 고사리순 가려내네.

문인의 봄철 밥상을 이루는 다양한 나물 중 고사리는 죽순과 함께 언급되

는 빈도가 높으며, 이러한 경향은 표2)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남송 시인 楊萬里의 작품에서도 두 식자재는 봄철의 계절적 정서를 함의하며, 풍성한 식문화를 형상화하는 매개체로 기능한다.²¹⁾

「船中蔬飯」²²⁾

食蕨食臂莫食拳, 고사리를 먹음에 즐기는 먹되 머리는 먹지 마오,
食笋食梢莫食根. 죽순을 먹음에 웃대가리는 먹되 뿌리는 먹지 마오.
何曾萬錢方下筯, 하중의 만전식 막 수저를 대니,
先生把菜亦飽去. 그대여, 채소로도 배불리 먹고 갈 수 있구려.
嶺南風物似江南, 영남의 풍물은 강남과 닮아,
笋如束薪蕨作簋. 죽순은 땔나무처럼 굵고 고사리는 바구니를 만들 수 있
다네.
先生食籍知幾卷, 그대 식보 몇 권인지 아는가,
千巖萬壑皆廚傳. 깊은 산 곳곳 모두 음식을 바치는구려.

양만리는 순희 6년(1179) 提舉廣東常平茶鹽公事に 임명되자, 다음 해 2월 1일 나이 54세에 고향을 떠나 광동을 향한다. 산길과 뱃길을 따라 펼쳐지는 嶺南의 풍경과 향토 식자재를 노래한 시들이 그 여정에 함께한다. 이 시는 廣州로 진입하는 초입에 위치한 淸遠 협곡에서 지어진 작품으로, 화자가 異鄉의 공간에서 고향 강남을 떠올리게 하는 고사리와 죽순의 밥상을 마주하며 익숙한 정경이 환기되고, 그 감흥이 시적 형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여기서 고사리가 오른 봄철 밥상은 타향의 산천과 고향을 정서적으로 잇는 장치로 기능한다. 문인들은 이러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내면의 정서를 투영함으로써, 물리적인 식탁을 넘어선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문학 공간을 재구성해

21) 양만리는 고사리와 죽순을 유달리 좋아하였다. 그의 작품 중 ‘고사리 蕨’ 자가 시어로 들어간 시는 20여 수, ‘죽순 筍’ 자가 들어간 시는 60여 수에 달한다. 대표작으로 「初食筍蕨」, 「晨炊泉水塘村店無肉只賣筍蕨嘲亭父」 등이 있다.

22) 楊萬里 撰, 辛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卷15 『南海集』, 中華書局, 2007, 774쪽. 淳熙 7년(1180, 54세), 그는 광동 부임 도중 이색적인 풍광에 매료되어 많은 시가 작품을 남겼는데, 이들 작품은 「船中蔬飯」은 2월 1일 太和江에서 시작, 2월 19일 大庾嶺을 건너, 淸遠峽을 지나고 난 후 지은 시이다.

낸다.

송대 시가에서 대략 140여 수의 작품에서 봄날의 싱그러운 죽순과 고사리를 노래하고 있다. 봄 채소로 대표되는 죽순과 고사리가 병용되어 시어로 사용될 때 대체로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앞서 양만리의 시와 같이, 북송 呂南公의 시 「筍蕨」에서 ‘죽순과 고사리는 내 고향 산천의 맛, 자옥한 풍진 속 객관에서 그리워하네(筍蕨吾山味, 風埃旅館心)’라고 한 것처럼, 죽순과 고사리는 고향의 들과 산에서 맛보는 자연의 음식을 대표함과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북송과 남송의 격변기를 겪은 李綱이 「食筍蕨」에서 ‘태관의 양고기 넘치게 먹어 누린내 질리더니, 사양에 죽순이 오히려 좋구나. 산고사리도 제철이라 연하고 맛있네(太官飽食厭羶腥, 却喜沙陽有竹萌. 山蕨邇來尤脆美)’라고 한 것처럼, 중앙 권력의 음식을 대표하는 양고기에 대한 대척점으로 죽순과 고사리를 언급한다.²³⁾

「初食筍蕨」²⁴⁾

庖鳳烹龍世浪傳, 용을 삶고 봉황을 굽는 요리가 세상에 헛되이 전해져도,
猩脣熊掌我無緣. 원숭이의 입술과 곰의 발바닥 같은 미식은 나와 인연이
없다네.

只逢筍蕨杯盤日, 그저 죽순과 고사리로 술상 차려지는 날이면,
便是山林富貴天. 산림 속에 거하면서도 부귀로운 나날이라네.
梔子玉膚新脫錦, 어린애 옥 같은 살결은 막 비단옷을 벗었고,
小兒紫臂未開拳. 아이의 붉은 팔뚝은 아직 주먹을 펴지 않았네.
只嫌嶺外無珍饈, 영남에는 진귀한 음식이 없다 싫어하면서,
一味春蔬不直錢. 맛 중의 맛, 봄 채소를 하찮게 여기네.

23) 김원희, 「죽순 味感 — 宋詩 속 맛 표현과 조리법을 중심으로」, 『중국문화연구』 제 71집, 2026, 26-30쪽 참조.

24) 楊萬里 撰, 辛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卷16 『南海集』 805쪽. 순희 8년(1181, 55세) 2월 廣東提點刑獄에 임명되었다. 윤 3월2일 임관지인 소주(韶州, 지금의 광둥성 韶關)으로 떠나기 직전 광주에서 지은 시이다.

죽순과 고사리로 차려진 상차림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萬錢食’ 즉 猩脣이나 熊掌으로 대변되는 산해진미와는 거리가 멀다. 시에서는 官場, 俗世, 도시 공간과 대비되는 자연 산림의 현장을 부각시키며, 肉食에 대한 향유가 아니라 산중 자연에서 얻은 채식 위주의 소박한 식사를 향유하는 일상의 모습을 노래하며 자연의 맛을 강조하고 있다.

산과 들판에서 흔히 채취하는 죽순과 고사리는 단순한 나물이 아니다. 독일의 민속학자 울리히 톨크스도르프(Ulrich Tolksdorf)는 인간의 섭식 행위가 단순한 생리적 충족을 넘어선 문화적 체계임을 강조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이 아닌 문화적 전승을 통해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학습하며, 이 과정에서 ‘요리’라는 문화 체계가 구축되었다.²⁵⁾

죽순과 고사리는 송대 시가에서 생장, 채취, 조리 과정의 묘사를 통해 사회문화적 의미를 매개하는 상징적 코드로 기능한다. 그 안에는 문인 사대부의 지향과 사회문화적 지표가 내재되어 있다. 송대 문인 사대부들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식음 행위를 시가에 재현함으로써, 自然, 時節을 체감하게 하는 대표 식재료인 죽순과 고사리를 통해 그들의 가치 체계를 드러낸 것이다.

3) 采薇

蘇軾은 元豐元年(1078), 북방 徐州의 봄철에 채소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들나물을 먹은 경험을 바탕으로, 蜀 지역의 정경을 회상하며 「春菜」를 지었다. 黃庭堅은 이에 대한 화답시를 지어 북방의 월동채소와는 사뭇 다른 고향 남방의 나물과 그 맛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였다.

「次韻子瞻春菜」²⁶⁾

25) Tolksdorf, U. "Strukturalistische Nahrungsforschung: Versuch eines generellen Ansatzes." *Ethnologica Europea* 9, 1976, 64-85쪽 참조.

26) 황정건 지음, 박종훈 등 옮김, 『황정건시집』6, 소명출판사, 2024, 353쪽 참조.

北方春蔬嚼冰雪, 북방의 봄나물은 얼음을 씹는 듯,
 妍暖思采南山蕨. 따스한 남산의 고사리 캐고 싶구나.
 韭苗水餅姑置之, 부추 순에 수제비는 일단 놔두고라도,
 苦菜黃雞羹糝滑. 씀바귀 넣은 걸쭉한 황계 국이 입에 감기네.
 蓴絲色紫菰首白, 순채는 색이 붉고, 고수는 희며,
 蔓蒿芽胝蕻頭辣. 물쭉은 싹이 달고, 개갯냉이는 머리가 매워라.
 生菹入湯翻手成, 갓 절인 채소를 끓는 물에 넣었다가 바로 건져내어,
 蓴以薑橙誇縷抹. 생강과 등자로 양념해 가늘게 썰어 무친 것을 자랑하네.

시에는 당시 문인들의 식탁에 오르는, 오늘날 중국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여러 봄철 식자재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따스한 남산의 고사리 캐고 싶구나(妍暖思采南山蕨)’라는 표현은 다양한 봄나물들이 인위적 재배의 산물이 아니라 자연 본연의 산물임을 강조한다.

‘采南山蕨’은 『詩經·召南·草蟲』篇의 ‘저 남산에 올라가서, 고사리를 캐노라(陟彼南山, 言采其蕨)’를 차용한 것이다. 『시경』은 諸侯의 大夫가 부역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그의 아내가 時物의 변화를 계기로 남편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읊은 작품이다. 반면 황정건이 언급한 ‘남산의 고사리 캐기’는 이런 단순한 봄철 계절 변화의 표상에 머무르지 않고, 고사리로 대표되는 봄 들관의 먹거리를 ‘채집’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한다.

南宋 『嘉定赤誠志』卷36 ‘蔬之屬’에 따르면, 台州 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 종류만 하여도 30여 종이었으며, 전국에는 수백 종에 달한다고 하였다. 당시 채소는 대부분 재배를 통해 수확되었다. 그럼에도 인위적 재배를 통해 생산되는 채소보다는 陸游가 「夢歸」 시에서 ‘연무 내린 밭고랑에서 산나물을 뜯네(烟畦挽野蔬)’라고 한 것처럼, 지천에서 자생하는 산나물이 식탁을 구성하는 중요한 식자재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²⁷⁾

27) 문헌 조사에 따르면, 송대 시제 중 ‘采’(또는 ‘採’)가 들어간 작품은 780여 수이다. 이는 ‘采蓮曲’, ‘采桑子’, ‘採芹’ 등 고사와 관련된 작품이나 ‘採藥’, ‘采菊’, ‘採石’처럼 실제 산나물 채집을 노래하지 않은 시를 제외하고, 야생에서 다양한 나물을 채집하여 먹었다는 내용을 다룬 산나물 채집 시만을 도출한 결과이다. 대표작으로 梅堯臣의 「舟中行自采枸杞子」과 「采芡」, 文同의 「采芡」, 鄭獬의 「采芡」, 彭汝礪의 「采葵」,

梅堯臣이 ‘산에서 나물 캐면 갓 나온 죽순에 고사리가 손에 들리고, 계곡에 낚싯줄 드리우면 바위틈 맑은 물고기가 밥상에 오르네(摘蔬有筍蕨, 釣庖有岩潭)’²⁸⁾, ‘산나물로 죽순과 고사리를 캐고, 들고기는 노루와 사슴을 사냥한다네(山蔬采笋蕨, 野膳獵麋麋)’²⁹⁾라고 언급한 점에서도 드러나듯, 고사리는 대표적인 채집 식물로, 전통적 식자재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沈與求, 「過徐氏郊居」³⁰⁾

恰當夜飯黃粱熟, 늦은 밤 시루에서는 노란 메조 밥 익어가고,
盛供春山紫蕨肥. 봄 산 풍성히 캐온 자줏빛 고사리 차려졌네.
侍坐無人只山月, 시중드는 이 없이 오직 산의 달뿐,
兩翁相對自忘機. 두 노인 서로 마주 보며 세상사 근심 잊네.

벗 夢得學士가 고사리순을 선물로 보내오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南宋 度正의 「夢得學士賢表惠寄蕨芽小詩馳謝聊發一粲」³¹⁾도 살펴보자.

陟彼南峰采蕨芽, 저 남산에 올라 고사리순을 캐어,
筠籃馳送簇英華. 대바구니 넘치게 담아 얼른 보내주었네.
東君進出非無意, 봄의 신이 자라게 한 데는 이유가 있으니,
救活饑腸幾萬家. 수많은 굶주린 이들을 구하려는 것이겠지.

沈與求와 度正의 시는 고사리가 채집의 場으로서의 자연, 나아가 삶의 지향과 가치가 내재된 자연에서 직접 획득한 음식이라는 성격을 강조한다. 시인은 자연의 산물을 스스로 채취하고 조리하여 음미·향유하는 일련의 과정을 함축함으로써, 음식 경험을 매개로 한 자연 체득과 가치 지향의 의미를 부각시

張耒의 「采蓮子」, 毛滂의 「隋堤采蕈」, 蘇洵의 「采菱」 등이 있다.

28) 梅堯臣, 「送家靜寺丞知洛南」(朱東潤 校注, 『梅堯臣集編年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958쪽)

29) 梅堯臣, 「寄滁州歐陽永叔」(朱東潤 校注, 앞의 책, 330쪽)

30) 沈與求, 『龜谿集』卷2, 四庫全書本.

31) 度正, 『性善堂稿』卷4, 四庫全書本.

키는 장치로 고사리를 활용하였다.

사마광 역시 벗 魏獻의 산장에서 함께한 식사 경험을 바탕으로 「三月十五日宿魏雲夫山莊」을 지어 그 감상을 드러냈다. 이때 벗과 더불어 한 자연식은 음식의 풍미를 심화하는 미각적 경험으로 작용하며, 나아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장이라는 장소적 정서와 채집의 경험이 결합됨으로써 식사의 의미를 한층 확장한다.

司馬光, 「三月十五日宿魏雲夫山莊」³²⁾
 飯炊松粒細, 가느다란 잣으로 밥 짓고,
 盤采蕨芽新. 새로 난 고사리순 꺾어 반찬으로 삼네
 靜覺精神健, 고요함 속 정신은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閑知氣味眞. 한가함 속 기미의 참됨을 알게 되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에서 식자재를 직접 채집하고 이를 조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형성된 미각은 단순한 감각적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고사리 밥상을 맞이하는 물리적인 산천 공간은, 자연과의 교감이 응축된 기억으로, 문인의 내면세계를 반영하는 상징성을 획득하게 된다.³³⁾

32) 司馬光 撰, 霞紹暉 校點, 『司馬光集』, 四川大學出版社, 2010, 240쪽.

33) 王洋의 시 「和吉父韻謝微父煮菜二首 其一」에서 ‘운해당 앞, 밥 알리는 복소리 분주하고, 두타암 아래, 나그네 배에서 냄새 진동하네. 언제나 죽순과 고사리 맛이 꿀처럼 달콤한 까닭에, 산사를 노니던 반맹양을 끌어들이는 구나(雲海堂前飯鼓忙, 頭陀岩下客船香. 長因筍蕨話如蜜, 引得遊山潘孟陽.)’라고 하였다. 산사에서 벗과 더불어 계절 음식을 향유하는 장면은, 음식의 맛이 단지 식자재 자체의 속성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놓이는 장소적 맥락과 교유의 정취에 의해서도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台州 崇道觀에서 벗 曾惇(字 微父)과 함께 죽순과 고사리로 대표되는 사찰식을 먹으며 ‘꿀처럼 달콤하다.(話如蜜)’라고 한 표현은 음식의 실제 당도를 지시하기보다는, 미각적 충족과 정서적 쾌락을 환기하는 수사적 장치로 이해된다.

3. 빈곤 속 고사리

1) 饑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사리의 생육이 왕성해지는 모습을 통해 봄의 도래와 자연이 베푸는 풍요로운 식탁을 찬미한 시가 작품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度正의 시에서 봄날 고사리의 풍요는 ‘수많은 굶주린 이들을 구하려는 것이겠지(救活饑腸幾萬家)’라고 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채집 행위는 산야초류를 식량으로 활용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산과 들의 나물을 채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렇기에 ‘고사리를 꺾으면 아침의 배고픔을 잊을 수 있다네(采蕨可以忘朝饑)³⁴⁾’라든지, ‘산고사리가 아침 허기를 채우네(山蕨助朝饑)³⁵⁾’, ‘주린 배 죽순과 고사리로 채우네(饑腸充筍蕨)³⁶⁾’ 등으로, 고사리는 풍요의 상징을 넘어 기근과 결부된 배고픔의 기호로 표출되는 양상 또한 송시 전반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蕭立之, 「春寒歎」³⁷⁾

深山處處人夷齊, 깊은 산 곳곳 백이와 숙제처럼,
鋤荒飯蕨填朝饑. 잡초 매고 고사리밥 먹으며 아침 허기 채우네.
干戈滿地此樂土, 난리통에 이곳이야말로 낙토였는데,
不謂乃有凶荒時. 생각지도 못하게 흉년이 들게 된다니.

남송 작가 蕭立之의 시 「春寒歎」은 송·원 교체기의 사회적 혼란과 유민

34) 陳文蔚, 「徐敬甫出示所居之別墅南岩圖並諸公題詠欲予同作爲賦長韻」, 『克齋集』卷15, 四庫全書本.

35) 王禹偁, 「謫居感事」, 『小畜集』卷8, 四庫全書本.

36) 鄧肅, 「西庵餞春」, 『栟櫚集』卷2, 四庫全書本.

37) 蕭立之, 「春寒歎」, 『蕭冰崖詩集拾遺』卷1, 明弘治十八年蕭敏刻本.

의 생존 불안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시인은 봄철 한기로 황폐해진 농토와 그로 인한 농민의 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깊은 산 곳곳 백이와 숙제처럼’이라는 표현은 전란을 피해 산야로 들어간 유민의 처지를 해당 고사에 빗대어 은유한 것이며, 극심한 흉년 속에서 고사리를 캐어 연명하는 현실을 한탄한 것이다.

송시에서 고사리가 기근과 결부되어 배고픔을 상징하는 소재로 정착하게 된 데에는 백이·숙제 고사에서 비롯된 문화적 연상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³⁸⁾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고사리가 식량난 시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체 식자원으로 활용되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吳芾의 시에서 고사리의 이 모습을 다시 확인해 보자.

「癸巳歲邑中大歉三七侄捐金散穀以濟艱食因成三十韻以紀之」³⁹⁾

雖幸朝家行賑濟, 비록 조정에서 구휼을 시행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正恐未能遍群黎. 과연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미칠지 걱정스럽구나!
往往傾村走山谷, 마을 사람들이 온통 산골짜기로 달려가서,
荷鋤掘地尋蕨萁. 호미를 지고 땅을 파며 고사리 뿌리를 찾네.
取根爲粉雖可飽, 뿌리를 캐서 가루를 내어 배를 채우기는 하지만,
食之既久人亦羸. 오래 먹다 보니 사람들은 점점 여위어 가네.
春來必至生疫癘, 봄이 오면 반드시 전염병이 돌 것이니,
死填溝壑夫何疑. 굶주린 시체가 도랑에 가득 차게 될 것은 뻔한 일 아닌가?

시는 1173년 절강성 台州 仙居縣 일대에 발생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배경으로, 고사리 뿌리로 연명해야 하는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를 채취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영양 결핍과 전염병이 확산하여 죽음에 이르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38) 황정건은 시 14수에서 고사리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시 「和答魏道輔寄懷十首其七」에서는 ‘배고프면 서산의 고사리를 먹으리(饑食西山蕨)’라고 하며, ‘西山’의 고사리 즉 익히 잘 알고 있는 首陽山의 백이·숙제 고사를 언급하며 은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다.

39) 吳芾, 『湖山集』卷4, 四庫全書本.

써, 당시 구휼이 미치지 못한 사회적 위기를 고발한다.

중국은 예로부터 늘 배고픔에 시달리는 땅이었다. 기원전 108년부터 서기 1911년까지 기록된 기근은 1,828건에 달한다. 이에 정부 관리는 기근 위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잉여 곡물을 국유 창고에 저장해 두었다.⁴⁰⁾ 그러나 葉適의 시 속 현실은 달랐다.

「送呂子陽自永康攜所解老子訪餘留未久其家報以細民艱食急歸發廩賑之」⁴¹⁾
 苦陳鄉人饑, 향인들의 굶주림을 괴롭게 하소연하는데,
 采蕨啖其根. 고사리를 캐어 그 뿌리를 먹으며 연명하네.
 倉封井花滿, 곳간을 걸어 잠그니 우물에 꽃만 가득,
 淘米安得渾. 쌀이 없으니 어찌 씻어 물이 더럽혀질 수 있으랴.

섭적의 시는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에 대한 깊은 연민을 환기하는 동시에,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곡물을 풀지 않고 ‘곳간을 걸어 잠근’ 지배층의 무능을 부각하는 도구로 고사리를 활용하고 있다.

시는 ‘采蕨’을 통해 민생의 곤궁이 심화하는 상황을 표현하면서, 이를 구제하지 못하는 관리들의 무책임을 ‘花滿’으로 드러낸다. 이와 같은 대비는 당시 사회 구조의 모순과 통치 질서의 부패를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시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饑饉’ 글자에서 ‘饑’는 곡식이 여물지 않아 생기는 굶주림을 뜻하고, ‘饉’은 채소가 자라지 않아 생기는 굶주림을 뜻한다. 즉, 곡식이 부족해도 굶주렸고 채소가 부족해도 굶주렸다. 인용한 시가 작품은 고사리 뿌리를 캐어 연명하던 민초들의 궁핍한 삶을 생생하게 형상화하면서도, 고사리가 단순한 식자재가 아닌 극심한 기근을 견디게 해준 救荒食이었음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⁴²⁾

40) 샤먼 애플 리셀 지음, 『배고픔에 관하여』, 돌베개, 2016, 191쪽 참조.

41) 葉適, 『水心先生文集』卷7, 四部叢刊本.

42) 明 朱櫨의 『救荒本草』(倪根金·張翠君 校注,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8)에는 414 종의 야생 식용 식물을 수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구황 작물로 ‘鹿蕨’, ‘水蕨’을 상세

2) 救荒

끓주림 속에 고사리의 뿌리까지 캐어 당장의 허기를 채우는 모습은 이들이 극한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南宋 溫州 출신의 許及之가 고사리를 먹으며 지은 시를 살펴보자.

「食蕨」⁴³⁾

撥茅無掘根, 고사리를 꺾을 때 뿌리까지 파지 않는다네,
掘根茅必空. 뿌리까지 파면 다음에 고사리는 사라지기 때문이지.
烏糲亦彊名, 검은 찹쌀이라고 부르는 건 좀 억지스럽구나,
安得墮農功. 어찌 농사일을 무시해서야 되겠는가.

고사리 뿌리까지 캐어 먹는다는 것은 다음 해 수확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 만큼 배고픔이 극한에 이르렀다는 것이기도 하다. 시는 이어서 고사리의 별칭인 ‘검은 찹쌀’ 즉 ‘烏糲’⁴⁴⁾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이 별칭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노래한 南宋 洪適의 시를 살펴보자.

「雜詠下 蕨」⁴⁵⁾

塊破擎拳出, 단단한 흙덩이 깨고 주먹 권 듯 솟아오르더니,
盤行轉眼空. 구불구불 자라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네.
救荒非小補, 구황에 큰 도움 주거늘,
粉骨不言功. 분골이 되어서도 공로를 말하지 않네.

하게 기재하고, 요리법으로 “어린썩이나 잎을 끓는 물에 데친 다음, 물에 담가 행궈내고, 기름과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는다(苗葉燂熟, 水浸淘淨, 油鹽調食.)”라고 소개하고 있다.

43) 許及之, 『涉齋集』卷2, 敬鄉樓叢書本.

44) 중국 민간에서 고사리를 ‘烏糲’라고 불렀다. 산에서 나는 칩뿌리는 ‘大烏糲’, 고사리는 ‘烏糲’라고 한 것이다. 칩뿌리와 고사리 뿌리는 가루로 만들어 조리할 수 있는데, 그 빛깔이 모두 검고 점성이 있어 찹쌀과 유사한 식감을 지니는 데서 이러한 명칭이 유래하였다.

45) 洪適, 『盤洲文集』卷9, 四庫全書本.

시에서 ‘구황에 큰 도움 주거늘, 분골이 되어서도 공로를 말하지 않네’라고 한 것에 대해, 自注에서 “辛卯年(1171)에 큰 흉년이 들어,⁴⁶⁾ 마을 사람들이 고사리 뿌리를 캐내어 가루로 만들었는데, 이를 ‘烏糲’라 부르고, 이 덕분에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았다”⁴⁷⁾라고 설명한다.

녹말을 함유한 식물은 일반적으로 칩뿌리와 토란 같은 구근류에 집중되어 포만감을 제공하는 주요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산나물 가운데에서도 고사리 뿌리가 예외적으로 전분을 함유하고 있어 구황 작물로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사리 뿌리를 갈아서 식용한 사례는 湖北 서남부 지역의 지방지 『鶴峰州志』卷11 ‘物産’에 “(고사리) 뿌리는 찢어 전분을 만들 수 있어, 흉년이 들면 백성들이 이를 쌀 대신 식량으로 삼았다(…根可搗粉, 歲欠, 民以代米糧.)”⁴⁸⁾라고 한 기록에서도 보인다.

같은 지역 지방지 『長樂縣志』卷12 ‘習俗’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농촌에서 기근을 겪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야생 고사리 뿌리를 캐서 분말화하여 흉년을 버티낸 고된 과정을 더욱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해가 지나도록 흉년이 이어지자, 고사리를 많이 캐어, 평평한 돌 위에서 뿔은 뒤, 물과 함께 나무 항아리에 담아 즙을 추출하였다. 이후 뿌리 찌꺼기를 건져내고, 더 깨끗이 하여, 전분을 만들었고, 이를 기근을 면하기 위한 식량으로 충당하였다.(逾歲荒次, 多挖藏, 於平石上去碎, 合水, 置木缸中, 以取其汁. 隨將根取出, 俾淨, 融成粉以充饑.)⁴⁹⁾

46) 『宋史』卷67에는 1171년에 일어난 대기근으로 “… 江西 지역의 江州, 筠州, 隆興府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 사람들은 풀과 열매를 먹으며 연명했고, 淮水 주변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떠돌아다녔다(…江·筠州·隆興府爲甚. 人食草實, 流徙淮甸)”라고 적고 있다. 洪適도 고향 饒州(江西 鄱陽)의 상황에 대해서 “竊聞饒州有前年椿留米三萬石…”라고 하며, 상평창의 쌀로 진휼을 행하여 흉년을 구제해 주길 청하는 글을 남겼다.(『盤洲文集』卷46)

47) 辛卯大荒, 村人掘藏根搗粉, 謂之烏糲, 賴以脫死者甚衆.

48) 清 乾隆六年刊本, 『中國地方志集成·湖北府縣志輯』第45卷, 江蘇古籍出版社, 2001.

49) 清 咸豐二年刊本, 『荊楚文庫·方志編』, 崇文書局, 2023.

기근이 든 해에 고사리는 그 가치를 유감없이 발휘된 모습이다. 지방지에 수록된 전분 추출 과정과 요리법은 시에서도 등장한다. 宋末 方一夔의 시를 살펴보자.

「次韻洪復翁食藏」⁵⁰⁾

花葉根莖種種香, 꽃잎 뿌리줄기 온갖 것이 향기롭지만,
誰知山草宿春糧.⁵¹⁾ 산나물이 양식이 될 줄 누가 아는가.
筠籃淨洗傾銀粉, 대바구니에 깨끗이 씻어, 은가루를 쏟아내고,
瓦釜狂搜凍蔗漿. 가마솥에서 마구 휘저어, 사탕수수즙을 얼려내네.
爽口如兼三鼎味⁵²⁾, 입맛이 돌게 하는 것이 마치 三鼎의 맛을 겸한 듯,
療饑不試五倉⁵³⁾方. 허기를 달래는데 굳이 五倉의 방술이 필요 없네.

흥년에 산간 주민들은 호미와 낫을 들고 입산하여 사방으로 뻗어 얹힌 고사리 뿌리를 채취한다. 이를 정리하고 세척한 뒤 물속에서 반복적으로 타작·여과·침전시키면 백색을 띤 얹은 홍색의 전분을 얻게 된다. 이 가루를 솥에 끓여 羹을 만들면 연근 가루보다 훨씬 더 진하고 걸쭉하다. 시에서는 그 맛이 삼정의 맛 즉 肉味처럼 입맛을 돋우고, 오창의 방술처럼 배를 부르게 하는 묘미를 가지고 있다고 노래한다.

南宋 包恢의 시를 살펴보자.

「二月道中效趙章泉體四首 其三」⁵⁴⁾

躑躅紅花何實用, 저 진달래 같은 붉은 꽃이 무슨 실용적인 쓸모가 있으랴.
牡丹名品只虛奇. 모란은 이름난 품종이지만, 그저 헛되고 기이할 뿐이지.

50) 方一夔, 『富山遺稿』卷7, 四庫全書本.

51) 『장자』 「逍遙遊」에 “백 리를 가는 자는 전날 밤에 양식을 찢어서 준비해야 하고, 천 리를 가는 자는 3개월 전부터 양식을 모아야 한다(適百里者, 宿春糧, 適千里者, 三月聚糧.)”라는 말이 있다.

52) ‘五鼎’은 소·돼지·양·물고기·사슴 등 다섯 종류의 肉味를 갖춘 음식이라는 뜻으로 富貴한 생활을 의미한다. 士는 제사에 ‘三鼎’으로 하고, 大夫는 ‘五鼎’으로 했다고 한다.

53) ‘오창’은 道家的 말로, 즉 사람의 뱃속에 있다는 ‘五倉神’을 말한다.

54) 包恢, 『敝帚叢畧』卷8, 四庫全書本.

看今春晚方艱食, 올해 늦봄 맞아 궁핍하기 그지없는 걸 보아하니,
何似充饑有蕨萁.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고사리와 콩깍지만 한 게 또
있으랴.

음력 2월은 여전히 쌀쌀한 기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식량이 고갈되는 이른바 ‘보릿고개’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때 생존의 문제가 첨예하게 부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인은 길가의 화려한 꽃이 아니라 실제로 식용이 가능한 고사리 한 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시적 대상으로 형상화한다. 특히 봄철 산야에 널리 자생하는 고사리가 굶주림 속에서 생명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외형적 화려함이 아닌 실질적 효용에 기반한 가치 인식을 제시한다.

이처럼 고사리는 기근을 견디게 하는 救荒食으로서의 실용적 기능을 넘어, 경제적 궁핍을 겪던 문인들의 일상적 식생활에도 자리 잡으며, 그들의 물질적 결핍과知足을 상징해 주는 의미 있는 식자재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毛滂, 「贈陳進士」⁵⁵⁾
民生委所窮,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궁핍함에 내몰리거늘,
出仕增軼軻. 관직에 나아가면 더욱 평탄치 않네.
家山有蕨薇, 가산에 고사리가 있으니,
歸足瘳饑餓. 돌아가면 굶주림은 면할 수 있겠지.

작가는 관직을 버리고 수입 없이 고향에 은거한 뒤, 생계는 고사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익살스럽게 이야기한다. 송대 축산업이 발달하였다고는 하지만, 문인의 음식은 기본적으로 채식에 근거한다. 南宋 度正은 시 「奉別唐寺丞丈一首」에서 ‘중년에 온갖 흉년을 겪으며, 고사리를 캐어 양식을 충당했지(中年或水旱, 采蕨充飯糗).’⁵⁶⁾라고 한 것처럼, 봄날 문인의 주린 배는 고사리가 채워졌다. 비슷한 시기를 살았던 韓滂의 주린 배 역시 고사리가 채워주었다.

55) 毛滂, 『東堂集』卷1, 四庫全書本.

56) 度正, 『性善堂稿』卷1, 四庫全書本.

「尹子潛送蕨」⁵⁷⁾

老來爲腹不爲目,⁵⁸⁾ 늙그막에는 눈을 즐겁게 하지 않고 배만 채우면 되니,
薄飯盤蔬亦云足. 변변찮은 밥에 나물 반찬으로도 만족해야지.
成年准擬薇蕨話, 평생 고사리의 맛에 익숙해져 있거늘,
那計人間有梁肉. 세속의 고기반찬을 어찌 피하리오.
二月三月春已深, 2월 3월 봄이 깊어지면,
靈山土肥皆去尋. 영산의 기름진 땅을 찾아 모두 나물 캐러 가지.
長莖短刺掛蘿簾, 긴 줄기 짧은 가시가 달린 것들 담장에 걸어 두네,
出市不直三數金. 시장에 내놓아도 서너 냥도 안 되서지.
隨流揚波淨掇洗, 흐르는 물에 흔들어가며 깨끗이 주물러 씻고는,
芼以薑鹽付鑪耳. 생강과 소금으로 양념하여 솥에 담네.
生柴帶葉旋抽添, 잎 있는 생나무라 불을 살피 가며,
糟苧曠沈時染指. 거품이 났다가 가라앉았다가 수시로 맛을 보네.
晨光破甑炊浮浮, 새벽 시루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니,
稻香菜軟吾何憂. 향기로운 밥과 부드러운 나물로 내 근심을 쫓아내네.
人可以食鮮知味, 사람은 매일 먹으나 맛을 아는 자는 드무니,
請聽以氣專致柔.⁵⁹⁾ 부디 기운을 모아 부드러움에 힘쓸 것을 당부하네.

고사리는 봄이면 주인 없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시인은 거친 것은 말려 긴 요할 때 쓰고, 여린 것은 양념과 더불어 삶아내어서는 밥과 함께 먹는다. ‘爲腹不爲目’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세속의 고기반찬이 아닌, 기가 충만한 자연 밥상이 순식간에 시인의 손에서 만들어진다.

이상에서 구황식으로 고사리를 노래한 여러 작품을 살펴보았다. 주목할 점은 이 작품들이 대부분 남송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남송 文天祥이 「御試策」을 통해 피력한 고민이나, 송말 黃震이 「戊辰輪對札

57) 韓泂, 『潤泉集』卷6, 四庫全書本.

58) 『老子』 제12장에서 “五色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五音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五味은 사람의 입을 버리게 하고,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채우고 눈의 욕망을 채우지 않으며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 是以聖人爲腹不爲目…)”라고 하였다.

59) 『道德經』 10장에서 “기운을 모아 부드럽게 만들어 어린아이와 같게 할 수 있는가?(專氣致柔, 能嬰兒乎?)”라고 한 것처럼, 부드러운 기가 내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어린아이에게 비유한 표현이다.

子」에서 토로한 위기의식은 당시의 상황이 단순히 국력의 쇠퇴나 군사력의 약화와 같은 거시적 담론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남송의 사대부들은 재정 파탄과 관료의 부패에 더해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일반 백성은 물론 주류에서 밀려난 가난한 문인들까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사리’는 문인 시가에서 빈곤이라는 현실적 고통을 견디고 극복하려는 의지이자,知足의 삶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4. 결론

송시는 다양한 식자재와 평범한 음식 등 일상적 사물들을 시적 상상력으로 변용하여 예술적 가치로 격상시킨 시기이다. 이러한 변모는 시의 소재를 일상적 삶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감정의 미학보다는 사유의 논리와 이성적 미감으로 새로운 시적 경향을 형성하였다.

본 연구는 송대 음식 시가에 나타난 고사리의 이미지 재현 양상과 그 문학적 상징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당시의 음식문화를 배경으로 문인들이 고사리를 단순한 식자재가 아닌 심미적 체험과 문화적 가치를 내포한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제일 먼저, ‘어린이의 주먹 권 손, 小兒拳’으로 대표되는 문학적 형상화를 분석함으로써 고사리가 지닌 미학적·상징적 의미를 밝혔다. 고사리는 봄을 대표하는 산나물로서 계절의 순환과 생명의 약동을 집약적으로 표상하며, 문인들에게 자연의 변화와 시간을 체감하게 하는 감각적 매개로 작용하였다. 이는 시적 감흥이 거시적 풍광보다 제철 식탁이라는 일상적·미각적 경험에서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제철 고사리의 채취와 향유는 자연 공간에서의 직접적 접촉과 실

천을 통해 형성되는 체험의 과정으로, 시가 속에서 중요한 형상화의 계기를 이룬다. 봄·자연 공간·고사리라는 시간·공간·물질의 결합은 감각과 기억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시적 경험을 구성하고, 그 결과 단순한 미각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맛’을 형성한다.

이처럼 봄날 풍요로운 산천에서 채집하고 향유하는 고사리는 역설적이게도 빈곤의 이미지를 내포한다. 송시에서 고사리가 기근과 결부되어 배고픔을 상징하는 소재로 활용된 데에는 백이·숙제 고사에서 비롯된 문화적 연상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긴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사리 뿌리를 분말화하여 생존 자원으로 삼았던 음식 문화 때문이기도 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송대 시가에서 고사리는 계절성, 체험성, 생존성을 아우르는 다층적 기호로 작동하며, 일상적 음식 경험이 시적 사유와 문화적 상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元)脫脫 等,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97.
- 傅璿琮 主編, 『全宋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8.
- 湯華泉, 『全宋詩輯補』, 合肥: 黃山書社, 2016.
- 唐圭璋 編, 『全宋詞』, 北京: 中華書局 1965.
- (宋)司馬光 撰, 霞紹暉 校點, 『司馬光集』,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10.
- (宋)梅堯臣, 朱東潤 校注, 『梅堯臣集編年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宋)黃庭堅, 劉琳 等校點, 『黃庭堅全集』,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2001.
- (宋)蘇軾, (清)馮應榴 輯注, 『蘇軾詩集合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宋)陸游, 錢仲聯 校注, 『劍南詩稿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宋)陸游, 孔祥賢 注釋, 『陸游飲食詩選注』, 北京: 中國商業出版社, 1989.
- (宋)楊萬里 撰, 辛更儒 箋校, 『楊萬里集箋校』, 北京: 中華書局, 2007.
- (明)李時珍, 『本草綱目』, 北京: 華夏出版社, 1998.
- (明)朱橚 著, 倪根金·張翠君 校注, 『救荒本草』, 北京: 中國農業出版社出版, 2008.
- 莫礪鋒, 『唐宋詩論稿』, 瀋陽: 遼海出版社, 2001.
- 샤먼 애플 러셀 지음, 『배고픔에 관하여』, 서울: 돌베개, 2016.
- 김민호, 『충절의 아이콘 백이와 숙제』,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 황정건 지음, 박종훈 등 옮김, 『황정견시집주』, 서울: 소명출판사, 2024.
- Tolksdorf, U. “Strukturalistische Nahrungsforschung: Versuch eines generellen Ansatzes.” *Ethnologica Europea* 9, 1976.
- 劉麗, 「宋代飲食詩研究」, 浙江大學博士學位論文, 2017.

Abstract

Bracken in Song Dynasty Food Poetry — Representation and Literary Symbolism

Kim, Won Hee

This study examines the representation of bracken in Song Dynasty food poetry and explores its literary symbolism. Furthermore, by situating these poems within the food culture of the perio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literati perceived bracken not merely as a culinary ingredient but as an object imbued with aesthetic experience and cultural significance.

First, through an analysis of the literary image of "a small child's clenched fist, 小兒拳" this study elucidates the aesthetic and symbolic meanings embodied in bracken. As a wild mountain vegetable emblematic of spring, bracken symbolizes both the cyclical passage of the seasons and the vitality of life. It serves as a sensory medium through which literati could experience the changing rhythms of nature and the passage of time in tangible ways. This finding demonstrates that poetic inspiration arose not only from grand landscapes but also from the everyday sensory experience of eating seasonal foods.

Furthermore, the gathering and enjoyment of seasonal bracken constitute an experience shaped by direct engagement with nature, thereby serving as a catalyst for poetic imagination. The convergence of season, place, and material object—spring, the natural landscape, and bracken—creates a poetic experience in which the senses and memory interact on multiple levels, giving rise to a complex notion of "taste" that transcends mere gustatory sensation.

Thus, bracken harvested and enjoyed amid the abundant mountains and streams of spring paradoxically comes to symbolize poverty. This symbolism was shaped not only by the cultural associations derived from the legend of Baek-i(백이) and Suk-je(숙제), but also by a food culture in which bracken roots were ground into

powder and consumed as a famine food.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at, in Song Dynasty poetry, bracken functions as a multilayered symbol encompassing seasonality, lived experience, and survival, illustrating how everyday culinary experiences are transformed into poetic reflection and cultural symbolism.

Key words : Song Dynasty Food Poetry, Bracken, Spring Cuisine, Poetic Imagination, Literary Symbolism, Food Culture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